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①	06. ①	07. ④	08. ②	09. ②	10. ⑤
11. ②	12. ③	13. ①	14. ③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④	23. ②	24. ①	25. ①	26. ⑤	27. ③	28. ④	29. ⑤	30. ②
31. ④	32. ③	33. ④	34. ②	35. ③	36. ①	37. ④	38. ②	39. ①	40. ②
41. ⑤	42. ②	43. ②	44. ①	45. ②					

[1~3] 화법

1.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기

정답해설 : 찬성1은 입론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⑤는 적절한 평가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최근 케이블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국립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라는 논제와 관련된 '국립'의 개념을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③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찬성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④ '관광객의 추가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2. 주장에 적절한 논거를 활용하기

정답해설 : 토론에서는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는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정상 주변의 원시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논거로, 환경 훼손을 근거로 들어 반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케이블카 설치가 추가적인 자연 훼손을 가져오므로 찬성 측의 논거가 될 수 없다. ② 새로운 샛길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자연 훼손 문제가 발생하므로 찬성 측의 논거가 될 수 없다. ③ 정류장의 입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경제적 효과는 찬성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이다. ④ 제시 자료에는 미관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토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참여하기

정답해설 : [A]를 참고하면, '확인 질문'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입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논거를 반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그 근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 반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탐방객 일부를 케이블카가 흡수한다는 내용은 찬성 측의 논거이다. ② 인공물의 설치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반대 측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어 확인질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④ 국립공원이 환경 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논의의 쟁점이 아니므로 확인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케이블카 이용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확인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4. 의사소통의 요소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화의 내용을 통해 '화법의 성격', '화법의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긴 안 꺼내요.'라는 말은, 부모님과의 진로에 대한 갈등 같은 화제에는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관심 여부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궁금한 걸 바로 여쭤 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요'는 이메일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의 좋은 점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은 구두 언어가 문자 언어에 비해 직접적이고 즉흥적인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② ㉡의 '만화가인 삼촌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훨씬 분명해졌어요.'는 대학에 다니는 선배보다 만화가인 삼촌에게 들으니 더 확신이 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은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③ ㉢의 '좀 전 복잡한 지하철에선 진로 얘길 하기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강변에 오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해 주신 말씀이 이해도 잘 되고요.'는 지하철 보다 강변에서 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도 잘 되고 좋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은 대화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④ ㉣의 '회수권이요? 회수권이 뭐죠?'는 과거에 '학생들이 쓰는 버스 승차권'을 지칭하던 용어인 회수권을 요즘 학생인 민수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5. 공감하며 말하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삼촌의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라는 말은, 뒤에 이어지는 '너만 할 때 고민이 생기면 생각도 할 겸 회수권도 아낄 겸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오곤 했지.'에서 알 수 있듯이, 삼촌이 자신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일체감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삼촌의 이 말은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한 것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감정, 처지에 동조해 주기'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삼촌의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은 말하기를 망설이는 민수가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준 부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해 주기'라고 할 수 있다. ③ 삼촌의 '그러니까 네 말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가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는 앞에서 민수가 한 말을 정리한 내용인데, 이는 삼촌이 민수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듣고 이해한 내용 확인하기'라고 할 수 있다. ④ 삼촌의 '전혀 그렇지 않아'는 민수가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는 민수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부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라고 할 수 있다. 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민수의 말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공감하며 듣기'의 한 방법인 '비언어적인 표현 활용하기'라고 할 수 있다.

[6~10] 작문

6. 요약하기 전략 활용하기

정답해설 : '은영'은 원문의 중심 문장인 '연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필기도구로 사랑을 받고 있다.'를 찾아 요약문을 작성했으므로, ①과 같은 조언은 불필요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영'의 요약문은 원문의 단어나 중심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서연'의 요약문은 원문의 중심 내용을 담되, 자신이 문장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③ '은영'은 '타자기와 컴퓨터'와 같은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 ④ '은영'은 각 문장을 연결어미나 접속어로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나열하여 요약문의 응집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긴밀한 연결을 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해야 하는데, 뒷받침 문장인 '미국만 해도~생산되었다.'와 같은 문장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조언은 적절하다.

[7~8]

7. 논설문 쓰기를 위한 계획하기

정답해설 : 논설문은 주제에 따라 논거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며, 이를 일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한다. <보기1>에서 글쓴이인 학생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구상하였다. 따라서 핵심 논거인 결혼이 늦어지는 원인을 본격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본론에서 ④와 같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은 논설문의 논리적 흐름 및 학생의 글쓰기 전 생각인 <보기1>과 맞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령대별 결혼율에 대한 통계 자료는 <보기1>에서 제시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기에 적절하다. ②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관련 인터뷰 자료는 <보기1>의 계획과 일치한다. ③ 글쓴이는 저출산의 원인을 늦어지고 있는 결혼에서 찾고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와 결혼 연기 현상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보기1>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 등의 자료를 통해 결혼이 늦어지는 사회적 원인을 찾고자 했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다.

8.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생성하기

정답해설 : 그래프나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글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가)는 주택 가격 지수가 점차 상승하고 있고, 평균 초혼 연령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결혼 비용의 증가가 늦은 결혼의 원인이라는 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결혼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 가격 지수와 결혼 연령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 (나)는 결혼 연기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은 자료이다. ③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음이 중요한 사실이며,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에서 '개인의 성취', '부모나 결혼 상대자의 반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등 '경제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개인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나)에서 남녀의 차이가 큰 항목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직장' 등이다. 이중 '불안정한 직장'은 글의 주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9~10]

9. 의도에 맞는 글쓰기 전략 활용하기

정답해설 : 학생은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기'라는 작문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의 요소만을 나열해서는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상황

에서 학생은 중심 내용 즉 주제를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으로 정하고 글을 쓰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예상독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글의 목적은 그림으로부터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다양한 수사법이 쓰이지 않았다. ④ 글에 제시된 내용은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므로 공간적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다. ⑤ 그림을 보고 글쓰기를 수행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0.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정답해설 : 글쓰는 이는 작문의 과정, 글의 맥락, 통일성과 응집성 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를 수행한다. ㉤ '오히려'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나, 고쳐 쓴 '그런데' 역시 적절하지 않다. 결론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므로 '따라서'가 적합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앞 문장의 내용과 같으므로 불필요하다. ② 동일 인물에 대한 지칭을 통일하는 것이 글의 이해를 돕고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③ 글은 중심내용 또는 주제를 향해 집약되어야 한다. ㉢은 불필요한 문장으로, 글의 흐름을 방해하고 통일성을 깨뜨리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당황하다'는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는 뜻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11~16] 문법

11. 연음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변동하는 현상의 하나인 '연음'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이다. <보기>를 통해 연음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발음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문항이다. 음운의 변동에서 중요한 것은 음운이 사용된 환경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말 +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접미사의 경우 연음이 발생한다. '육학년'의 경우, 그 환경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 자음으로 시작되는 명사이다.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연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학년'의 경우는 'ㄱ, ㄷ, ㅂ, ㅈ'으로 끝나는 말 + ㅎ으로 시작되는 말의 환경에서 'ㅋ, ㅌ, ㅍ, ㅊ'으로 변하는 경우로 '축약'에 해당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여덟'의 받침 'ㄼ'과 '이', '이야'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연결되어 연음의 환경이 충족되므로 [여덜비], [여덜비야]로 발음된다. ③ '겉'과 조사 '으로'가 결합된 것으로, [거트로]로 발음해야 한다. ④ '빛'이 '이', '은'의 조사와 결합된 것

이므로, [비치], [비츤]으로 발음한다. ⑤ '밤낮'이 '으로'와 연결될 때는 [밤나즈로]로, '낮일'의 경우에는 '일'이 모음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조사나 어미 등이 아니라 명사이기 때문에 연음은 적용되지 않고, [난닐]로 발음된다.

12. 한글맞춤법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의 기본원리에 나타난 표준발음과 맞춤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문항이다. 소리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의 두 종류가 있음을 제시하고, 소리대로만 적는 경우 조사나 어미 등과의 결합 환경에 따라 같은 단어가 다르게 표기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경우는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켜 표기한다는 것이다. ③의 '퍼서', '펐다'는 '푸-'라는 원래의 형태가 아니라 소리대로 표기를 했기에 ㉠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먹어'와 '먹은'은 [머거]나 [머근]처럼 소리대로가 아니라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킨 ㉡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② '굳이'와 '같이' 역시 [구지], [가치]처럼 소리 나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에 ㉡에 해당된다. ④ '미덥다'와 '우습다'는 어간 '믿-'과 '웃-'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의 사례이다. 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⑤에서 한자 '老'를 '노'와 '로'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13.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의적 문장 등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바르게 고쳐 보는 문항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사례에서, '~점은'이라는 주어는 반드시 '~점(것)이다.'라는 서술어와 호응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은 바르게 고친 것이다. 한편 '와'라는 접속조사에 의해 중의적 문장이 되어 어법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민수와 진희는 결혼을 했다.'라는 문장은 민수와 진희 두 사람이 부부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수와 진희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황에 적절하게 조사를 사용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는 ~와 결혼을 했다.'라는 문장은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게 표현되었기에 ㉢은 어법에 맞게 바르게 고친 문장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의 '비단'이라는 부사어는 '~아니다' 등의 부정적 서술어와 호응하는 단어인데, 이를 '버리다'라는 서술어와 연결하였기에 적절하지 않다. ㉣의 '귀여운 영희 친구'는 수식 구조의 모호함에 의해 중의성이 나타나는 문장인데, '귀여운' 대상이 영희인지, 친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친구가 귀여운 경우라면, '영희의 귀여운 친구가 놀러 왔다.'처럼 수식하는 단어 앞으로 피수식어를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4.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담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화자의 의도 표현 등과 관련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③의 '구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라는 의문문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라는 담화 상황을 볼 때 길을 묻는 의도가 직접 드러난 발화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아, 목마르다.'는 귀가한 후 누나에게 발화한 상황으로 볼 때 '물을 달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추운 교실이라는 상황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발화한 것으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창을 닫게 하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의문형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빌려주기 싫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추운 겨울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하는 발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차를 드시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파생 접사를 이용한 새말 만들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여러 파생 접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이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한과장이'라는 새말을 만들었는데,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므로 한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쓰기에 적합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것인데, 어떤 것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로, '그것을 자주 하다'의 의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멋있게 잘 하다'의 의미에 '-꾸러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장이'는 특별한 기술과 관련된 것이기에 농담을 많이 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어의 형태와 의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등 세 가지 의미 변화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와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의미의 확대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의미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축소는 의미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며 의미의 이동은 다른 뜻으로 의미가 변화된 경우이다. '어엿브다'는 '가엾다'라는 의미에서 '예쁘다'의 의미로 다르게 변화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말 전체를 이르는 '말'이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특정한 경우를 이르는 말로 바뀌었기에 의미 축

소에 해당된다. ②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변했기에 의미 이동에 해당된다. ③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놈'이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축소된 경우이다. ④ '많다'를 의미하는 '하다'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변화한 의미 이동의 경우이다.

[17-30] 독서

[17-18] 예술, '석가탑'

지문해설 : 이 글은 석가탑의 조형적인 특징과 예술적인 표현 기법에 주목하여 미술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먼저 석가탑이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정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밝힌 후,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 각각의 구조와 미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가탑이 선인들의 안목과 미감, 기교와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미술 작품임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석가탑의 조형미와 표현 기법 및 가치

17.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심 제재인 '석가탑'의 특징을 잘 이해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석가탑의 기단부를 설명한 2문단에는 '기단부의 하층은 낮지만 넓게, 상층은 다소 좁지만 높게 구성되어 있어 안정감을 준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폭과 높이를 줄여 상하 균형을 맞추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3문단의 탑신부를 설명한 내용으로. '탑신과 옥개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폭과 높이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균제미가 드러난다'고 밝히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기단부의 하층은 낮지만 넓게, 상층은 다소 좁지만 높게 구성되어 있어 안정감을 준다'와 3문단의 '탑신부는 3층으로, 각 층은 탑신과 옥개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과 옥개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폭과 높이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어 전체적으로 균제미가 드러난다'에서 '기단부와 탑신부, 탑신과 옥개가 서로 잘 어울려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석가탑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수십 개의 석재들이 정교하게 하나의 구조물로 잘 짜 맞추어져 있어 정치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그리하여 석가탑은 구조적인 면에서 ~ 그 완성도가 높아 이후 세워진 석탑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에서 '석재들을 정교하게 짜 맞추어 하나의 구조물로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상층기단 괴임의 하단 모서리는 둥글게, 상단 모서리는 각지게 변화를 주어 율동감을 느끼게 한다'와 3문단의 '살며시 추켜올려진 옥개의 전각은 직선 중심의 강한 외관을 반전시키고, 전체 이미지

에 유려함과 경쾌함을 더하고 있다'에서 '직선적 미감에 곡선미를 가미한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석가탑은 석조 예술품이면서도 기둥과 지붕 모양을 갖추어 목탑의 외관을 보여 준다'에서 '석재로 조성했지만 양식적으로는 목탑적 요소도 갖추었다'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8. 예술 감상 방법의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쓴이가 이 글에서 활용한 예술품 감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글은 2~4문단에서 석가탑을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와 모양 등의 조형적인 특징과 미적 표현 기법 및 효과를 밝히고, 5문단에서 석가탑의 미술사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글쓴이는 '조형적인 특징과 예술적인 표현 기법에 주목하여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를 살핀다'는 예술품 감상 방법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의 글쓴이는 민족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지 않았고, 형식적 실험성과 창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② 이 글의 글쓴이는 석가탑의 조성 시기와 배경을 주목하지 않았고, 공간적 배치와 실용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종교적인 상징과 의미에 주목하지 않았고, 작품에 구현된 당대의 세계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⑤ 이글의 글쓴이는 감동이나 교훈적 측면에 주목하지 않았고, 작가의 가치나 정신세계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9-21] 인문, '데카르트의 회의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카르트의 회의론과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데카르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만든다. 그리하여 그는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지식은 믿을 수 없으며, 수학의 지식과 같이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도 의심의 대상이 됨을 밝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는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만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철저한 회의론에 따르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데카르트는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한 한계를 지녔다.

[주제] 데카르트의 회의론과 그 한계

19. 글쓴이의 집필 의도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데카르트의 회의론과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1문단에서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으로 데카르트의 회의론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2문단에서는 감각에 의해 생긴 지식에 대한 의심을, 3문단에서는 수학의 지식을 예로 들어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에 대한 의심을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서는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대한 설명이며, 이어지는 두 문단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확실성'조차 그 토대가 부실하며,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될 수 없음을 들어 그가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는 데카르트가 의심했던 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른 학자들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글의 2, 3문단에서는 논지를 전개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지만, 그것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의 1문단에서 상식과 회의론을 대비하고 있지만, 이 문단을 포함한 다른 문단에서 상식적 개념을 분석하여 대립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에서는 데카르트의 회의론에 대해 설명한 후 그 한계를 지적하는 흐름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의 회의론에 대립하는 다른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0. 관점의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의 2문단에서 데카르트는 꿈에서도 깨어 있을 때와 같은 종류의 감각을 한다는 점을 들어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을 부정한다. 이어 3문단에서 데카르트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수학의 지식마저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동일한 것 같지만, '악마'가 존재하여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기> ㄱ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꿈속에서의 지식 역시 감각적인 것도 있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3문단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악마'가 존재하여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능하며, 그런 악마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상하여 의심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의 ㄴ은 데카르트는 물론 철저한 회의론자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철저한 회의론에 의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주체가 없다면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기>의 ㄷ도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5문단에서 보듯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던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처럼 철저한 회의론자의 입장에서는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보기>의 ㅁ).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의심하면 <보기>의 ㄹ과 같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③**

21.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과 해석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통 속의 뇌'에서 나의 경험을 컴퓨터가 조작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 글의 3문단에서 데카르트가 말했던 '악마' 즉 사실과 다르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일 수는 없다.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③ <보기>의 '통 속의 뇌'에서는 컴퓨터가 나의 경험을 조작한다. 이 컴퓨터는 실제 사실과 다르게 우리를 속이는 데카르트의 '악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데카르트의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통 속의 뇌'의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컴퓨터에 의해 조작된 경험이기 때문이다. ⑤ <보기>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상상은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가 그러한 '통 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다.

[22-24] 사회, '자본주의의 흐름과 중간층의 변화 양상'

지문해설 : 이 글은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른 중간층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1문단에서 중간층의 사회적 역할, 중간층 귀속 의식과 사회 안정에 대해 설명한 후,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의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중간층이 겪었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피고 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자본주의의 흐름과 중간층의 변화 양상

22.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중간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언급한 후,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라 중간층이 겪어온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문단에서 중간층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이후의 논의를 위한 전제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사회 계층에 대한 문헌을 근거로 중산층의 기능을 논증하거나, 그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1문단에서 중간층 귀속 의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논의의 중심은 아니며 중간층의 심리적 특성을 도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⑤ 이 글을 중간층과 관련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객관적 사례라고 할 만한 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23.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1문단에 의하면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 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간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간층이 밀려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의 하층으로 몰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세기 들어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중간층의 주축으로 성장하여 20세기 중반까지 사회 안정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와 중간층은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고 이로 인해 다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2문단에 의하면,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 자본가들의 성장하면서 중간층이 경쟁에서 밀려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사회 안정이 위협받게 되자, 일부 국가에서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④, ⑤ 19세기 후반에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가들이 산업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20세기 후반에는 중간 관리자나 사무직이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자동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설의 확대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24. 새로운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보듯이 중간층은 상·하층 사이의 완충 지대로서 사회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중간층 귀속 의식이 하층으로 확산될수록 그만큼 사회는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을 확대하고 중간층 귀속 의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에 의하면 사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대책,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③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 귀속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중간층과 하층이 보다 상위의 계층 귀속 의식을 갖는다면 기대 수준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④ 중간층의 위기 현상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를 이 글에서 찾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판단이 옳다면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⑤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간층 귀속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계층적 지위와 계층 귀속 의식의 일치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25-28] 과학, '태양의 에너지'

지문해설 : 이 글은 태양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간 태양의 구성 성분이나 에너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모두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 기체가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으로, 고온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소 원자핵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의 압력에 의해 중심부에서 멀어졌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중심부로 들어온다. 이처럼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통해 태양은 안정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주제] 태양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생성되는 원리

25. 메모하며 읽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독서의 절차 중 '읽는 중 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2문단에서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에 대해서 '불변의 제5 원소설'과 '불덩어리설'이라는 가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환히 빛났다가 얼마 후 다시 희미해지는 별인 '신성'의 발견으로 별이 불변한다는 통념은 무너지게 됐다. 따라서 신성의 관찰로 '제5 원소설'이 인정됐다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보면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덩어리설이 흑점의 관찰에서 제안됐다고 볼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의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를 통해 수천 년 전 아주 뜨거웠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과거 지구의 기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 있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를 통해 핵분열 에너지설은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통해 부정됐다고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 마지막 문장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더 확실해졌다'에서 핵융합 에너지설이 태양의 중성미자의 관측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6. 판단의 근거 추리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은 온도가 낮아지면 핵융합 에너지 줄어들고, 그 결과 압력이 낮아져 수소가 태양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다시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압력으로 인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고 보는 ⑤는 ㉡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섭씨 5,500도로 가열될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태양에서 유사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것이 참이 되려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주로 내는 빛의 색이 다르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② 새로운 에너지의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이 참이 되려면, 열을 내는 물체는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③ ㉢에서 수소 원자핵 네 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며, 이 질량 결손으로 인해 핵융합 에너지가 생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이 줄어들면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④ 반발력을 극복하고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을 해야 융합이 가능하다는 진술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핵들은 본래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27. 개념의 창의적 적용

정답해설 : 태양은 중력으로 수소 원자핵을 끌어 당겨서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며, 천만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나게 된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에너지의 압력이 높아지면 수소는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수소가 나간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중심부의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들고 압력이 줄어들어 수소가 다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다. 이처럼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중요한 힘은 수소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된다. 따라서 <보기>의 '핵융합 장치'도 이처럼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의 중력과 유사하게 수소 원자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을 보면 원자핵의 핵융합은 천만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데,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와 압력, 온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방사능 물질은 핵분열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핵융합 장치는 대체 에너지 기술로 수소 원자핵을 사용하는 장치이다. ④ 4문단에서 태양은 핵분열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6문단에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깨뜨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8. 어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발열하다'와 '발열되다'는 모두 자동사로만 쓰이고, 나머지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관통하다'는 '과녁을'과 쓸 수 있고, '관통되다'는 '화살에 의해'와 쓸 수 있다. ② '보존하다'는 '문화재를'과 쓸 수 있고, '보존되다'는 '문화재가'와 쓸 수 있다. ③ '완공하다'는 '건물을'과 쓸 수 있고, '완공되다'는 '건물이'와 쓸 수 있다. ⑤ '개편하다'는 '체제를'와 쓸 수 있고, '개편되다'는 '체제가'와 쓸 수 있다.

[29-30] 홍대용 '매헌에게 씀'

지문해설 : 이 글은 홍대용의 저서 '담헌집(湛軒集)'에 실린 편지글의 일부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방법과 자세를 매헌(梅軒)에게 권고하고 당부한 글이다. 제시된 부분은 독서를 할 때 의문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의문이 생길 경우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궁구하다 보면 깨닫게 됨을 밝히고, 잘못된 독서의 방법과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독서하는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본다'는 '이의역지(以意逆志)'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올바른 독서의 방법과 태도

29. 독서의 태도 비교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독서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야함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이 글은 학문 수양을 위한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보기>는 취업, 시험, 면접에 관련된 책이나 전자 제품 사용 설명서 등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B(<보기>의 필자)는 A(이 글의 필자)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이 글의 필자)는 학문 수양을 위한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태도를 밝히고 있는데 비해, B(<보기>의 필자)는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따른 독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A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A는 일반적인 독서 방법과 태도를 밝힌데 비해, B는 취업, 시험 면접 등과 관련된 책이나 전자 제품 사용 설명서 등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독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가 A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A는 학문 수양을 위한 독서에 대해 밝힌데 비해, B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A는 궁구하여 통하는 독서,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독서에 대해 밝힌데 비해, B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독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가 B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0. 독서의 전략 이해

정답해설 : 이 문항은 글쓴이가 이 글에서 밝힌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해 글을 내용을 예측하며 하는 독서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의문만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의문이 생기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일부러 질문을 만들면서 하는 독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구하도록 한다. ~수시로 궁구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에서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읽어 가도록 한다'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해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에서 '옛사람의 뜻'은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들까지도 말해 두었다'와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에서 '글의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31-45] 문학

[31-33] 고전소설, 작자 미상, '흥부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박타령>이 고전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선인과 악인의 인간형을 잘 보여주는 '흥부'와 '놀부'라는 두 인물을 통해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고전소설의 일반적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단순히 형제간의 우애와 도덕적 주제를 강조한 작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대의 퇴락해 가는 양반가와 서민들의 삶을 그려낸 풍속사적인 작품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의식주와 관련된 빈부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놀부는 토지를 소유한 신흥 부농층을 흥부는 몰락한 빈농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

다.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답게 다분히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지문의 판본은 다른 판본과 달리 '당동'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런 변화는 인물의 희화화를 통한 해학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勸善懲惡), 빈부 간의 갈등

31. 인물의 태도와 특성 판단

정답해설 : 놀부는 박을 탈 때마다 연이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박을 타자고 째보에게 간청하고, 째보는 이런 간청을 승낙한다. 하지만 째보는 박이 점점 열려가자 이전처럼 탈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놀부를 속이고 도망을 간다. 이렇듯 째보가 도망을 친 것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째보는 기회주의적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놀부'는 왕 생원에게는 공손한 태도로 대하지만, 아내와 자식의 말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권위적 자세를 취한다. ② '놀부 처'는 박을 타서 금은보화를 얻자는 놀부의 의견에 동조하지만, 한편으로는 박을 타면 혹시 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③ '놀부 자식들'은 국을 먹었더니 당동 소리가 난다는 어머니의 말에 동조한다. ⑤ '왕 생원'은 놀부의 집에서 들려오는 당동 소리에 궁금하여 놀부를 불렀다가 자신도 당동 소리를 내게 되는 봉변을 당한다.

32. 표현상 특징과 효과 판단

정답해설 : ㉢은 박을 넣어 만든 국을 잔뜩 먹은 놀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부정적 인물인 놀부에 대해 친근감이나 동정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견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만 만족하는 놀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슬근슬근'과 같은 첩어, '톱질이야'를 반복을 통한 리듬감있는 표현으로 금은보화에 대한 얻을 기대에 부푼 놀부의 흥겨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에는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은 온다는 의미의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한자성어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박을 타면서 겪었던 부정적 상황을 수용하려는 놀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당동'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인물을 재미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⑤ 놀부 가족이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에는 이를 즐거운 상황처럼 표현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도하고 있다.

33. 세계문학에 나오는 등장인물과의 비교

정답해설 :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빠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겠다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놀부는 금은보화에 대한 욕망에 빠져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인물이다. 동서양이라는 공간은 다르지만 「홍부전」과 「돈키호테」에 나오는 두 인물은 모두 비판의 대상이자 풍자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빠진 인물로 전형적인 기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탐욕스러운 놀부 역시 당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환상에 빠져 이상적 세계의 재건을 모색하는 인물은 돈키호테만을 가리킨다. 놀부는 오히려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물이다. ③ 돈키호테가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놀부는 시종일관 지금보다 더 많은 금은보화를 얻고 싶어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⑤ 돈키호테는 이상적 가치를 앞세우고 있고, 놀부는 세속적 가치를 앞세우는 인물이다.

[34-35] 고전시가,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지문해설 : 이 시조는 '어부(漁父)'의 사계를 한자어와 우리말을 적절히 조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 시조의 화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연과의 합일과 풍류를 추구하는 '고기잡이'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지문에 실린 춘(春)4, 하(夏)2, 추(秋)2, 동(冬)8은 각각 해당 계절의 어촌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어부가 즐기는 어촌의 풍류(風流)

3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조의 화자는 어촌에서 풍류를 즐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주는 흥취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이 시조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시조에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라는 여음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규칙적으로 나온다. ③ 시조는 모두 4음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조 역시 4음보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시조에서 '바다'는 합일의 공간으로서 이상적인 세계로 표현되어 있다. ⑤ 이 시조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고루 사용되어 있다.

35.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조의 '추(秋)2'는 가을을 맞이하여 시적 화자가 느끼는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에게 가을은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노는 계절이다. 그의 눈에 비친 'ㅅ、ㄹ진 고기'들은 그의 이런 느낌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춘(春)4'에서 '벅구기'와 '버들숩'은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이 전체에서 전혀 애상감을 느낄 수 없다. ② 세속에 무심한 '빅구

(白鷗)'와 시적 화자는 누가 누구를 좇는지 모르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④ 화자의 눈에 비친 '솔'의 '싁싁홈'은 절개를 지키는 충직한 신하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절개를 부각시켰을 뿐이고, 이에 대해 갈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⑤ '파랑셩'을 속세로부터 어부의 삶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할 뿐이다.

[36-39] 현대소설, 이광수, '무정'

작품해설 : 1917년 「매일 신보」에 연재된 이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서 근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 작품은 주인공 영채와 선형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유연애, 민족의식, 자아 탐색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주인공에게는 근대적 의식과 자아의 각성이 보이고 있으며, 비약적이고 추상적인 서술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밀한 서술 방식이 쓰였다. 또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개성적 인물이 설정되었으며, 선악의 이분법적 도식에서 탈피하였고, 문어체가 아니라 언문일치에 가까운 구어체가 사용되었다. 이 작품은 이런 점에서 이전 문학과 차별된다. 하지만 작가가 작품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계몽주의적 태도로 해결하려고 했으며, 서사의 과정과 결말 구조가 여전히 고전 소설의 면모를 보인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지문의 장면은 형식과 선형은 미국으로, 병욱과 영채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부산행 기차를 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면이다.

[주제] 민족의식과 개화의식, 자유연애 사상의 고취

36. 서술과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서술자는 현대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며, 문명의 소리가 요란할수록 나라가 잘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는 현대 문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개혁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 또 서술자는 동시대의 여러 사회 문제를 비판하지 않고, 아직까지 현대 문명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동시대 사람의 태도만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으며(대유법), 현대 문명의 상징인 다양한 소리를 나열하고 있다(열거법). ③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통해 세상이 점차 근대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④ '그네는 ~ 되어야 한다.'처럼 서술자는 작품 속에서 개화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문어체에 가까운 운문적인 서술을 사용한 이전 소설과 달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구어체에 가까운 산문적 서술을 사용하고 있다.

37. 등장인물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미국으로 떠나는 '형식'을 배웅하는 무리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형식'에게 만세를 외치는 것은 형식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에게 개화된 미국으로 떠나는 형식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학생'은 선형처럼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 자신을 어리석은 인물로 보지는 않는다. ② '선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웅을 받고 있으며, 또 그녀도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볼 때 선형이 미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③ '남대문'은 영채에게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또 영채가 '남대문'을 어떻게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할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④ '병욱'이 '선형'과 '형식'에 관하여 '영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형식'을 잊지 못하는 '영채'를 걱정해서이다.

38. 중심소재의 기능 파악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민중들에게 기차는 고향의 상실이라는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지만, 이 작품은 주인공인 영채와 병욱은 고향(고국)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기차를 타고 있는 인물들은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문명개화에 앞선 계층임을 알 수 있다. ③ 영채는 기차에 자신이 잊으려고 한 형식이 탔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린다. 형식을 잊을지 말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④ 등장인물들은 모두 문명개화를 위해 외국으로 나간다. 이들을 문명개화로 이끄는 기차는 근대문명의 상징물이다. ⑤ 영채가 기차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형식을 잊기 위해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영채에게 기차는 과거를 벗어나 새 출발을 하게 해 주는 장치로 볼 수 있다.

39.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판단

정답해설 : 영채는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불안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영채처럼 불안이나 근심 등으로 인해 한군데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는 상황을 이르는 한자성어로는 '좌불안석(坐不安席)'이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간담상조(肝膽相照)'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귐을 뜻한다. ③ '전전반측(輾轉反側)'은 걱정 때문에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못 이룸을 뜻한다. ④ 침소봉대(針小棒大)는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허풍을 떨어 말함을 뜻한다. ⑤ '절치부심(切齒腐心)'은 몹시 분하여 이

를 갈고 속을 썩임을 뜻한다.

[40-42] 현대시

(가)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26년 「개벽」에 실린 시로, 일제에게 주권과 국토를 빼앗긴 비극적 현실을 봄이 찾아온 아름다움과 대비하여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설움과 국권 회복에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1연과 11연이 질문과 대답 형식을 띠고 있고, 2연과 10연, 3연과 9연이 각각 대칭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질문에서 대답에 이르기까지의 화자의 의식과 태도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1연에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2~3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몽상의 상태에서 들판에 서있는 까닭을 묻는다. 4~8연에서 화자는 아름다운 봄 경치에 동화되기도 하고, 노동을 통해 국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9~10연에서 화자는 현실을 재인식하면서 절망감에 빠진다. 그리고 마지막 11연에서는 1연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노동에 기반을 둔 당대 민중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제] 국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비통한 현실

(나) 최두석, '성에꽃'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새벽의 시내버스를 배경으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어느 추운 날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서리는 성에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는 고단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애환에 대한 연민으로 볼 수 있으며, 한겨울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성에꽃을 피우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애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도 철장에 갇힌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이 사회에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의 삶에 대한 애정

40.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계절적 배경인 '봄'을 통해 봄을 맞이한 생명력 넘치는 국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이런 '봄'조차 빼앗길 처지에 놓인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나)는 계절적 배경으로 '겨울'을 통하여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이런 상황 속에도 자신의 삶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 서민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서 계절적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와 주제

의식의 연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슬픈 웃음, 슬픔 울음', (나)의 '차가운 아름다움'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를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의 공간적 배경은 '들', (나)의 공간적 배경은 '시내버스 안'으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에는 '성에꽃', '아름다움' 등 명사나 명사형으로 된 시어를 행들의 끝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이런 배치가 보이지 않는다. ⑤ (가)에는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아씨같이', '삼단 같이', '젖가슴 같은' 등 직유적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였으나, (나)에는 '전람회에 온 듯'에 직유적 표현이 한 번만 쓰였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이 작품을 <보기>를 바탕으로 민중의 생활과 관련지어 감상하면 [A]에는 민중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에 희망이 올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이 나타나 있고, [E]에는 절망적인 민중의 현실에 대한 재확인이 나타나 있다. [B]~[D]에는 민중의 생명력과 노동을 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 그럼에도 노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 인식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B]~[D]에는 비참한 민중의 처지를 바꿔 보려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노동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린 민중의 참담한 상황을 표현한 시구이다. ② ㉢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고, ㉣은 직접 노동에 참여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는 시어이다. ③ [B]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싶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D]에서는 화자는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으로 인해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C]에서 화자가 들판에서의 체험을 통해 민중의 실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④ ㉡은 화자가 지향하려는 이상적 공간이고, ㉤은 자연이 주는 기쁨과 현실이 주는 슬픔을 느끼는 화자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시구이다.

42. 화자의 심미적 태도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심미적 태도란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인식하는 태도이다. 화자는 새벽 시내버스에 탄 서민들이 피어낸 것으로, 화자는 성에꽃이 서민들이 공동으로 어울려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인식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가 아름답다고 느낀 것은 '성에꽃'이지, 새벽 시내버스가 아니다. ③ '성에꽃'이 아름다운 것은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흔적이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은밀하게 피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⑤ 화자가 친구를 회상한 것은 친구가

성에꽃을 만드는 사람처럼 살았음에도 지금은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43-45] 시나리오

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불치병으로 인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30대 사진사가 자신의 삶을 정리해 가는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차분하게 주변을 정리해 간다. 그런데 그런 남자의 삶에 갑자기 건강하고 활기찬 20대 주차 단속원이 등장한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삶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남자와 여자는 점점 서로에게 끌리게 되지만, 남자는 섣불리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여자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자는 죽고, 여자는 갑자기 사라진 남자로 인해 슬퍼하지만 그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한다. 이 작품은 주제와 표현 면에서 다른 작품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작가는 죽음이 공포나 고통만을 수반한다는 관습적 사고를 깨고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소중함을 죽음을 맞이하는 남자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또 표현 면에서 젊은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사를 줄이는 대신에 행동과 표정으로 그들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인물이 지닌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절절하게 드러내고 효과가 있다.

[주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남자의 애틋한 사랑과 죽음을 응시하는 따뜻한 시선

4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에는 '정원'과 '다림'이 서로에게 점차 서로에게 끌리는 상황을 연속된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특별한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진사 '정원'은 사진을 인화하러 온 '다림'에게 끌리게 되고, '다림'도 자신의 사진을 찍어주는 '정원'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③ 사진관, 상가 등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이다. ④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된 각 사건들은 '정원'과 '다림'이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그들의 심리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작품은 인물의 말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4. 시나리오의 촬영 기법 파악

정답해설 : ㉠에서 화면 속 '다림'의 모습이 보이면서, 화면 밖에서는 '정원'의 목소리는 들린다. 이처럼 화면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통해 화면 밖에 또 다른 인물이 존

재하고 있으며, 그 인물이 화면 안의 인물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 남자 옷을 바라보는 '다림'의 행동은 '다림'이 '정원'에서 선물을 하고 싶을 정도의 호감이 생겼음을 암시한다. ③ ㉢은 '다림'이 '정원'을 위해 그의 사진관을 청소할 정도로 '정원'을 가깝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어지러운 풍경은 정원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⑤ ㉤에서 '정원'과 '다림'이 어색해하며 사이를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45. 장면의 영화화 방안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S#81에서 '정원'과 '다림'은 동시에 뛰기 시작하는데, '정원'은 곧 숨을 헐떡이며 멈춘 반면에 '다림'은 '정원'이 멈춘 뒤에도 혼자서 운동장을 뛴다. 따라서 이 장면은 병든 '정원'과 건강한 '다림'의 상반된 상태가 부각되도록 영상화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장면은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장면의 초점은 '정원'과 '다림'의 상반된 처지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조연들을 출연시킬 필요는 없다. ④ '다림'이 달리기가 끝나자 헐떡이며 '정원'에게 다가온다고 했다. ⑤ 이 장면에는 두 인물이 어떤 심리를 지니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